

인식의 사각지대, 여성 문제

- 김남주 시를 중심으로

정순진

국문초록

이 글은 여성의 모습이 나타난 김남주의 시를 대상으로 한국의 기층 여성이 안고 있는 민족 모순, 계급 모순, 성 모순이 어느 만큼 인식되고 형상화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이 상보적으로 기능한 결과인 능욕 당한 여성을 소재로 충격적인 참상을 폭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참상에 함께 기능하고 있는 성모순에 대한 인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능욕 당한 여성들을 보면서 민족 문제나 계급 문제는 인식하면서 성 문제는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보다 열등한 존재임을 믿는 성차별 이데올로기에 깊이 침윤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내면화된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시를 통해 재생산하고 있었다. 분노와 적개심으로 분열된 마음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긍정적 여성을 형상화시키고 있는 작품도 있지만 그 여성은 민족과 계급과 성을 초월한 상태에서 존재하거나 민족과 계급과 성을 분화시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존재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모든 존재조건을 초월해 자식을 위해서는 초인적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이며, 조선의 딸은 가족의 소중함만을 인식할 뿐 가족구조 속에 엄연히 존재하는 불평등한 인간관계에는 눈감은 화자의 이상 속에 존재하고, 넉넉한 하얀 덩어리의 아낙들은 네 살 밖이 아이의 인식에서만 존재한다.

이것은 여성 문제라고 하면 단순하게 지배계급 혹은 외세에 의해 자행되는 성적 유린만을 떠

울릴 뿐 여성노동의 불평등 문제, 무보수 가사노동의 문제, 노동의 영역에서 배제된 생명 재생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인이기보다는 전사로 남고 싶어했던 김남주의 전선은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이었지 성모순은 아니었고, 시인이기보다 전사로 남고자 했기에 그는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비유와 상징보다 버린 칼날같이 날카롭고 강직한 언어를 구사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김남주의 시에서 여성문제는 인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핵심어 : 김남주 시, 가부장제 패러다임, 성차별 이데올로기, 여성 이미지, 어머니의 신화화

1. 들어가면서

1974년 《창작과 비평》여름호에 「진혼가」 등 7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한 김남주는 1980년대를 감옥에서 보내면서도 『진혼가』,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의 시집을 통해 민족 민중운동의 최정점에 서 있었던 시인이다. 따라서 그의 시세계의 기반은 독재와 외세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다. 그의 신념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현실은 제국주의에 의한 분단과 매판 지배계급의 독재 체제이며, 시는 그런 현실을 혁명하는 무기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그의 시에는 제국주의와 지배계급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와 민중에 대한 사랑이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데 그 선명함에 있어서 필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본고는 여성의 모습이 나타난 그의 시를 대상으로 한다. 여성은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절반에 해당하건만 여성을 제재로 한 그의 시는 우선 수적으로 현저하게 적다. 그런 현상을 인정하면서 준열한 전사였던 시인의 시선에 포착된 여성을 통해 한국의 기층 여성이 안고 있는 민족 모순, 계급 모순, 성 모순이 어느 만큼 인식되고 형상화되어 있는지, 그런 모순 해결에 대해 어떤 전망을 보여 주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은 김남주 시인이 민족 민중 운동에서 차지했던 위치가 위치인 만큼 민족 민중 운동 진영

에서 여성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2. 폭력과 능욕의 세계

김남주 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는 여성 이미지는 학살되고 능욕 당한 모습이다.

제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싸우는 민중들을
계획적으로 학살하는 아메리카여
보아다오, 너희들과 너희들 딸마니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를
음모와 착취로 뒤덮인 이 땅을
보아다오, 너희들이 팔아먹은 탄환으로
별집투성이가 된 내 조국의 심장을

보아다오, 살해된 처녀의 피묻은 머리카락을
보아다오, 대검에 찢린 아이 밴 어머니의 배를
보아다오, 학살된 아이들의 청량한 눈동자를
- 「학살 · 1」에서

당신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팀스피리트 작전의 미국군인들에게 겁간당한 산골여인의 비명을
그 비명의 임자가 내 고모뻘 되는 사람입니다.
- 「나의 이름은」에서

「학살 · 1」에 나타난 학살된 여성 이미지는 학살의 정도를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그것에 비례하여 학살의 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무장하지

얇은 민간인 학살, 그 중에서도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무차별 살상은 설혹 이민족끼리의 전쟁이라 해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더구나 <제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싸우는 민중들>을 학살한 것이며, 또한 그런 투쟁과 무관한 처녀, 임산부, 아이가 난자된 모습으로 제시됨으로써 제 계급의 이익 외에는 눈감은 지배계급의 맹목성과 잔혹성을 직접적으로 가시화시킨다.

「나의 이름은」에 나타난 미국군인에 의한 여성의 겁간 역시 우리를 지켜 준다는, 혈맹이라는 외세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행위를 극명하게 폭로한다. 지배계급과 외세에 의한 여성 폭력은 우선 능욕으로 나타난다. 이 시들은 식민지 시대와 분단 시대 내내 계속되어 온 외세에 의한 성침탈과 폭력, 그리고 권력을 장악한 지배계급이 행사하는 성폭력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된 채 능욕 당한 여성들을 직접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이 상보적으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유일하게 여성만 능욕 당한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민족 문제나 계급 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는 여성 문제임을 확실하게 보여 준다. 브라운 밀러에 의하면" 여성의 의지와 상반되는 성교를 하도록 강요하는 강간 행위야말로 가부장제의 비밀이다. 강간의 가능성 및 현실성이 남성에게 완력을 사용하여 여성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때 강간은 여성을 재산으로 간주했던 사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가부장제 패러다임은 여성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여성에 대한 성적 인권 침해를 가부장제 아래서 남성들 사이에 벌어지는 재산권 싸움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즉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남성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재산이며 그것을 침해하는 것은 당사자 여성에 대한 능욕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능욕 당한 여성이 속하는 남성 집단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 된다는 가부장제 논리가 작동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시는 외세에 의한 성침탈을 왜곡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
- 1) 수잔 브라운밀러,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 남성, 여성 그리고 강간』, p.209. 헤스터 아 이젠슈타인 저, 한정자 역, 『현대여성해방사상』(이대출판부, 1989), p.82 재인용.
 - 2)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박종철출판사, 1999), p.106.

내 큰누이는

해방된 조국의 밤골 처녀

고은 식 독설을 빌리자면

미팔군 군화 밑에서 짹짹 벌어진 밤송이 보지

내 작은누이는 근대화된 조국의 신식여성

뽕이식 표현을 빌리자면

쪽발이 엔화 밑에서 활짝 벌어진 관광보지

씩어 문드러져 얼마나 빠져버렸나

흔들어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고

꼬집어 꼬집어도 감각이 없는

아, 반 토막 내 조국

허리 꺾여 36년 언제 눈뜨리

치욕의 이 긴 긴 잠에서

- 「불감증」 전문

잡년아 어제는

미친년 고쟁이로 필력은 히노마루 같고

쪽발이 왜발이 좃대강이 빨더니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월남이라 망국사 못 읽게 하더니

잡년아 오늘은

피묻은 고쟁이로 필력은 성조기 같고

흰둥이 검둥이 좃대강이 빨더니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베트남이라 해방사 못 읽게 하더니

내일은 또 누구의 것 빨면서

무슨 책 못 읽게 하려나 잡년아 씹을년아.

- 「전후 36년사」 전문

공적 담론에서는 금기시되어 있는 단어를 서슴없이 시에 사용하여 충격 주고 있는 이 시들은 '반 토막 내 조국'의 불감증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누이들이 당한 능욕을 소재로 삼고 있다. 비속어와 욕설로 성을 표현하는 것은 참담한 우리 역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나라'인 <조국>의 치욕을 수식하기 위해 여성 성기를 적나라하게 동원하는 것은 굳이 여성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여성으로 표현하는 관습적이고 수사적인 모욕과 비하일 뿐이다. 게다가 이런 표현은 조국의 불감증 상태를 여성 성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만으로 축소 왜곡시키게 된다. 또한 이 시에서 다루어진 성은 침탈이 분명한데 <짜 짜 벌어진>, <활짝 벌어진>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마치 그 일이 여성이 주체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서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왜곡시키고 만다. 이렇게 되면 남성은 자기 집단에 속한 여성도 지키지 못해 능욕 당하게 했다는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능욕 당한 책임까지 여성에게 떠넘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월남 해방사나 베트남 해방사를 읽지 못하게 한 것이 성침탈을 당한 피해 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욕설로 매도하는 「전후 36년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갈고>, <빨고>, <못 읽게 하더니> 등 능동적으로 보이는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전후 36년을 여성이 주도해 온 것처럼 왜곡시킨다. 지배계급에게 피부어져야 할 분노와 증오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심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고통의 원인이 자신 입에도 부구하고 남에게 전가시키는 투사나 위협을 많이 주는 대상에게 가해져야 할 공격을 위협을 덜 주는 대상에게 분출하는 전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성모순 자체에 대한 고려 없이 학살되고 능욕 당한 여성을 시의 소재로 삼는 것은 제대로 효과를 낸다 해도 그 여성을 소유하고 있는 남성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발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다 책임감 있는 가부장도 못 되는 약하고 비굴한 가부장의 경우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해 오히려 피해여성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다 성적 능욕을 당한 것은 여성의 치욕이라는 유교적 도덕이 합세하여 피해 여성을 이중으로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시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역사에서 외국인에 의해 수탈된 여성들의 성은 유래가 깊다. 근세사에서만도 정신대며, 양공주, 기생관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침탈되었다. 그때마다 피해 여성을 비난하기에 급급했던 저간의 사정은 모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유교적 도덕의 결합에 근거하고 있다. 사실 이 시들과 같은 서슴없는 성적 담론 자체가 시인이 남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런 사정은 더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리라.

3. 편견과 차별의 세계

능욕 당한 여성들을 보면서 민족 문제나 계급 문제는 인식하면서 성 문제는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인 자신이 성차별 이데올로기에 깊이 침윤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차별 이데올로기의 특징은" 첫째 법률, 교육제도, 종교, 언어 등 사회의 모든 제도에 편재되어 있으며 상호보강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이고 둘째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념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남주의 다음 시를 읽어 보자.

남자들은 왜 여자만 보면 만지려고 그러지요?

그 이유를 말하지.

저기 좀 봐 길가에 핀 꽃, 맨드라미를.

나는 망금

맨드라미를 보고 말의 볼기짝이라 생각했고

3) 여성사회학연구회, 박영숙 옮김, 『여성사회학』(도서출판 한울, 1985), p.14

그 생각에 잠시 잠기다가
그에게로 다가가고 싶었고
그 향기에 취하고 싶었고
그에게 가까이 막상 다가갔더니 만지고 싶었고
그리고 만졌어 그뿐이야.

왜 꺾지는 않았지요?

울 테니까 꽃이.

- 「꽃」 전문

위 시는 남녀 사이에 있을 법한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자를 꽃에다 비유하는 상투적인 비유도 실망스럽지만 꺾지 않은 것만 해도 여성을 대단하게 배려한 행동인 것처럼 “울 테니까 꽃이” 하고 도치법을 써서 강조하는 어법도 유감스럽다.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꽃이라는 발상을 하기 때문에 왜 만지냐는 항의성 질문에 만지고 싶으면 만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응수를 하게 된다. 여자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만지고 싶다고 만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만지는 걸 좋아할지 싫어할지 생각해 보고,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하겠지만 여자를 꽃이라고 여기게 되면 자신의 의사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기게 된다. 울까봐 꺾지 않았다는 표현도 단지 수사적일 뿐이다. 꺾인 꽃은 우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게 된다. 여자를 남자와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의식은 「여자」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여자

역시 여자

어쩔 수 없이 여자일 수밖에 없는 여자

그러나 여자가 과연 여자일 때는

백치가 되어

전사의 피를 닦아주는 하얀 손수건일 때
천치가 되어
노동의 땀을 씻어주는 푸른 손수건일 때
전문

〈역시〉의 의미는 '또한'으로, 혹시 다른 게 있을까 기대했으나 기대할 게 없이 그렇고 그럴 때 쓰는 부사이다. 이 시에서 1행부터 3행까지의 시구가 암시하고 있는 비난과 포기 어조는 그대로 사회에 유포되어 있는 악의적인 성차별적 신념이다. 〈과연〉은 알고 보니 정말의 의미로 결과가 좋을 때 쓰는 부사이니 4행부터 8행까지가 시인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여자이다. 이 시인이 생각하는 〈과연 여자일 때는〉 여자가 〈백치〉이고 〈천치〉일 때이다. 여자는 같이 전사가 되거나 노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피와 땀을 닦아줄 〈손수건〉일 때가 가장 바람직한 대상인 것이다.

억세게 다뤘어야 했는데
불을 훔치듯 입술을 훔쳐야 했는데
허벅지라도 압박해줬어야 했는데
다부지게 박아줬어야 했는데
엄살만 잔뜩 부렸기에 헛바닥으로
간지럼만 푹푹 먹였기에 팬촉으로

떠나버렸어 폭탄을 던지듯
던져버리고 꺼져버렸어 진정한
용기가 만용으로 통하는 거리에선
-「여자는」에서

이 시는 힘과 폭력으로만 여자를 다룰 수 있고 순결 이데올로기에 묶어 두어야만 여자를 소유할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신념을 그대로 반

복하고 있다. 그 신념이 잘못된 것임을 보이기 위해 기술한 것이 아니고 그 신념대로 하지 않았더니 여자가 <꺼져버렸>다는 것이다. 즉, 여성을 그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성들 스스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자와 남자는 상호이해에 기초를 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소유하고 종속되는 존재라는 의식을 거리낌없이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에 서 있는 남성 집단이라 해도 성모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이런 기현상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하트만은 “가부장제는 남성간에 이루어지는 사회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 물질적 기반을 가진 계급제이기도 하지만 남성들이 여성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호의존과 연대를 창출하기도 한다. 다른 계급, 인종, 민족, 집단에 속한 남성은 가부장제에서의 위치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은 여성에 대한 지배라고 하는 공통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고, 그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의존하고 있다”⁴⁾면서 이런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4. 조화와 합일의 세계

시인이기보다 전사로 남고 싶어했던 김남주의 시에도 도탑고 따사로운 서정적 정서로 일관된 시가 있다. 그런 서정시⁵⁾에는 분노와 적개심, 혁명을 고무하는 강렬한 전투적 상상력이 사라지고 대립과 갈등이 무화된 조화와 합일의 상태를 지향하는 정서가 펼쳐져 있다.

밤 들어 세상은

4) Hartmann H. I., “The Unhappy Marriage of Maxism and Feminism: Toward a More Progressive Union”, *Capital & Class*, 1979, p.11

5) 이은봉, 「김남주 시의 정서적 특질에 대하여」, 『시와 생태적 상상력』(소명출판, 2000), pp.287-319

은통 고요한데
그리워 못 잊어 홀로 잠 못 이뤄
불 밝혀 지새우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별이라 그러다
기약이라 소망이라 그러다
밤 깊어
가장 괴로울 때면
사람들은 저마다 별이 되어
어머니 어머니라 부른다
-「별」 전문

이 시는 〈별〉, 〈기약〉, 〈소망〉, 〈어머니〉를 등가에 놓는다. 〈어머니〉란 〈별〉과 같은 존재, 〈소망〉 같은 존재, 〈가장 괴로울 때〉 부르는 존재이다. “공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거의 내포하고 있지 않⁶⁾”은 시, “시적 화자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성을 담아내고 있는⁷⁾” 이 시에서도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어머니를 지나치게 이상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땅의 어머니들은 아들을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희생하고 인내하는 헌신적인 존재로 신화화되어 있다. 물론 어머니가 되는 체험이 기쁨과 보람을 줄 수도 있지만 출산과 양육과정에 수반되는 인내와 고통 등 어머니 되기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숭고하고 위대한 것으로만 포장하고 미화하는 것은 모성을 신화로 만들게 한다. 모성이 신화로 이용될 때 그것은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고 만다⁸⁾. 한국 사회는 특히 식민지, 이념전쟁, 산업화를 겪으면서 자식에게 희생적인 어머니이면서 가정의 역할과 주부의 역할을 함께 도맡을 강인한 여성을 필요로 하였다.

6) 위와 같음

7) 위와 같음

8) Juliet Mitchell, “Women : The Longest Revolution”, *New Left Review* 40, 1966, pp.11-12

하지만 희생 정신으로 무장한 무성적 존재로서의 어머니가 되라는 문화적 압력에 짓눌리는 이 땅의 어머니들은 개체로서의 욕망을 느끼는 여성이기도 하며, 제도화된 온갖 성차별에 시달리는 노동자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적인 어머니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여성을 공적 영역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사적 영역에서만 인식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모자관계에만 갇혀 있어 어머니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시각에서 편향적으로 어머니를 신화화 혹은 이상화 시키는 것은 어머니를 박제시키는 결과를 낳고 만다.

출옥 이후 긍정적이고 넉넉한 여성을 그리고 있는 「조선의 딸」에서도, 여성 문제에 관한 한 시인은 여전히 인식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른 자리 반반한 풀밭을 골라
 빨강게 파랗게 원앙을 수놓은 하얀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들밥을 차리는 농부의 딸을 보아라
 이 마을에 아니 이 나라에 하나뿐인
 검은 치마 하얀 저고리를 보아라

—아버지 그만 쉬셨다 하세요
 저만큼에서 허리 굽혀 나락을 베는 아버지 곁으로 가
 아버지 대신 나락을 베고
 —아저씨 밥 한술 뜨고 가세요
 지나가는 낯선 사람도 불러
 이웃처럼 술도 한잔 드시게 하는
 조선의 딸 그 마음을 보아라
 마을에 하나뿐인 아니 이 나라에 하나뿐인
 - 「조선의 딸」에서

이 시에서 그리고 있는, 시인이 바라는 이상적인 여인은 농부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고 <농부의 딸>이다. 가족관계에서 독립되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인간이다. ('아내' 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여성은 영원히 성숙하지 않는다는 편견이 얼마나 뿌리깊은지 실감할 수 있다.) 시인이 그녀에게 감탄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녀를 좀 보라고 외치는 이유는 <수놓은 하얀 보자기를 깔고> 조신하게 들밥을 차리는 행동, <검은 치마 하얀 저고리> 입은 모습, 아버지는 물론 지나가는 낯선 사람까지 챙기는 넉넉한 마음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들판에서 밥을 먹는데 반반한 풀밭에, 수놓은 하얀 보자기를 꼭 깔아야 하는지도 의심스럽지만 그런 발상은 우선 수놓은 여성의 다소곳한 모습을 여성답다고 여기는 성차별적 의식에서 가능하다는 사실과 하얀 보자기를 하얗게 유지하는데 들어야 하는 수고와 노동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나락 베던 들판, 여럿이 막걸리를 돌리고, 김치와 보리밥을 나누는 자리에 원앙을 수놓은 하얀 보자기를 까는 모습을 형상화시킨 것은 들판에 나왔어서도 하얀 식탁보 깔린 밥상에서 접대 받고 싶어하는 특권의식의 발로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더불어 한국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상보를 쓰기는 했어도 밥상에 식탁보를 깔지는 않았다는 사실도 지적해야겠다. 둘째 이유에는 왜 검은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어야만 조선의 딸인지 되묻게 된다. 그렇다면 조선의 아들은 검은 바지에 하얀 저고리를 입고 있는지? 의식주의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법, 그 변화는 거부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자가당착이리라. 거기다 모든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남성의 변화는 인정하고 여성의 변화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원칙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딸의 넉넉한 마음을 노래한 3연에서도 이런 의문은 계속 이어진다. "—아부지 그만 쉬셨다 하셔요/저만큼에서 허리 굽혀 나락을 베는 아버지 곁으로 가/아버지 대신 나락을 베고"는 들밥을 내오느라 이제까지 땀 흘리며 일했을 농부의 딸의 노동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나락을 베는 남성의

노동만 가치 있는 노동일 뿐 밥을 준비하는 것은 노동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거기다 그 딸은 아버지가 식사하는 동안 대신 나락을 베고 그러면서도 지나가는 낯선 사람의 술시중까지 들어야 한다. 전형적인 가부장제 농촌의 정서를 그리고 있는 이 시는 남성의 입장에서 행동 조신하고, 효성스럽고, 넉넉한 마음을 지닌 여성을 미화하고 있을 뿐 가족 구조 속에 엄존하는 불평등한 인간관계와 그 조선의 딸이 직면하고 있는 여성 문제에는 거의 맹목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짝반짝 하늘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초저녁
나는 자식놈을 데불고 고향의 들길을 걷고 있었다.

아빠 아빠 우리는 고추로 쉬하는데 여자들은 엉덩이로 하지?

이제 갓 네 살 먹은 아이가 하는 말을 어이없이 듣고 나서
나는 야릇한 예감이 들어 주위를 한번 쓰윽 훑어보았다 저만큼 고추밭에서
아낙 셋이 하얗게 엉덩이를 까놓고 천연스럽게 뒤를 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산마루에 걸린 초승달이 입이 귀밑까지 찌지도록 웃고 있었다.
-「추석 무렵」 전문

이 시는 **삽상**하고 행복이 충만한 풍경화 하나를 보여준다. 초가을 산마루에 초승달 뜬 초저녁, 들길을 걷는 시인과 네 살 박이 아들, 멀리 고추밭에서 뒤를 보고 있는 아낙 셋의 뒷모습으로 구성된 이 풍경화가 기상천외한 대화까지 한 도막 건넨다.

“아빠 아빠 우리는 고추로 쉬하는데 여자들은 엉덩이로 하지?” 아이의 엉뚱한 말은 강고한 어른의 상투적인 인식을 깨뜨리는 효력을 발휘하고, 고추로 쉬하는 부자와 고추밭에서 엉덩이로 쉬하는 아낙 셋의 대비는 말의

재미와 함께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 세계를 환기시킨다. 하얀 엉덩이가 세 개나 되는 풍경은 육감적이라기보다 풍만하고, 〈귀밑까지 찌지도록 옷〉은 초승달은 아버지의 모습과 합치되면서 밝고 행복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하지만 이 행복한 조화와 순연한 아름다움은 김남주 시에서 거의 유일한 경우에 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불식되지 않는 한 네 살 박이기가 아이는 성장하면서 고추로 쉬하는 것이 엉덩이로 쉬하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믿게 되리라는 점에서, 우연하게 포착된 것이지 인식의 결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5. 나오면서

이상에서 필자는 김남주의 시에 형상화된 여성문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이 상보적으로 기능한 결과인 능욕 당한 여성을 소재로 충격적인 참상을 폭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참상에 함께 기능하고 있는 성모순에 대한 인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시인은 내면화된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재생산하고 있었다. 물론 의도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분노와 적개심으로 분열된 마음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여성을 형상화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여성은 민족과 계급과 성을 초월한 상태에서 존재하거나 민족과 계급과 성을 분화시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 어머니는 모든 존재조건을 초월해 자식을 위해서는 초인적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이며, 조선의 딸은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할 뿐 가족구조 속에 엄연히 존재하는 불평등한 인간관계에는 눈감은 화자의 이상 속에 존재하고, 넉넉한 하얀 엉덩이의 아낙들은 네 살 박이 아이의 시선에서만 존재한다.

이것은 여성 문제라고 하면 단순하게 지배계급 혹은 외세에 의해 자행되는 성적 유린만을 떠올릴 뿐 여성노동의 불평등 문제, 무보수 가사노동의

문제, 노동의 영역에서 배제된 생명 재생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민족 문제, 계급 문제가 해결되면 여성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증이기도 하다.

이런 의식이 사실 김남주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나 김남주의 경우 다른 해석의 여지없이 너무 선명하게 자기 생각을 노골적으로 말해 버려 인식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된 것이기도 하다. 프랑스 인권 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 선언을 기초한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은 ‘파리 시민권을 가진 남성’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파리 시민권을 가진 남성’이라 못박지 않고 ‘모든 인간’이라고 함으로써 이 선언은 자신도 인간이라고 오해한 파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인, 유색인, 노동자 계급, 여성, 장애인의 해방을 촉발시켜 왔다.

널리 불려지는 그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에 나오는 “네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네가 와서 일으켜주고”의 아름다운 ‘동지’에 시인은 여성을 포함시키지 않았겠지만 많은 여성들은 여성도 포함되는 거라고 오해하며 남성들과 함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어깨를 견고 있다.

선명하다는 것은 강렬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대신 그 발화가 기초하고 있는 현실이 변화하게 되면 곧바로 효용가치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인이기보다는 전사로 남고 싶어했던 김남주의 전선은 민족모순과 계급 모순이었지 성모순은 아니었고, 시인이기보다 전사로 남고자 했기에 그는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비유와 상징보다 버린 칼날같이 날카롭고 강직한 언어를 구사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김남주의 시에서 여성 문제는 인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은, 『나의 칼 나의 피 : 김남주시집』, 인동, 1993
- 김남주, 『나와 함께 모든 노래가 사라진다면』, 창작과비평사, 2002
- 김남주, 『사랑의 무기』, 창작과비평사, 1989
- 김남주, 『사상의 거처』, 창작과비평사, 1991
- 김남주, 『솔직히 말하자』, 풀빛, 1989
- 김남주, 『시와 혁명』, 나무, 1992
- 김남주, 『옛 마을을 지나며』, 문학동네, 1999
- 김남주, 『이 좋은 세상에』, 한길사, 1992
- 김남주, 『조국은 하나다』, 남풍, 1992
- 김남주, 『진혼가』, 청사, 1984
- 김남주, 『창작이란 무엇인가』, 정민, 1993
- 김남주, 『편지 : 김남주 연서』, 이름, 1999
- 김남주,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미래사, 1991
- 강형철 외 엮음, 『90년대를 찾아서 2』, 개마고원, 1996
- 강형철, 『시인의 길 사람의 길』, 예하, 1994
- 김형수, 『반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필담, 1995
- 여성사회학연구회, 박영숙 옮김, 『여성사회학』, 도서출판 한울, 1985
- 이동하, 『문학의 길, 삶의 길』, 문학과지성사, 1987
- 이은봉, 『시와 생태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0
- 장석주, 『비국적 상상력』, 청하, 1989
- 정순진, 『여성의 현실과 문학』, 푸른사상, 2001
- 황석영, 『내가 만난 김남주』, 이름, 2000
- H. I Hartmann, "The Unhappy Marriage of Maxism and Feminism: Toward a More Progressive Union", Capital & Class, 1979
- 아이젠슈타인 헤스터, 한정자 역, 『현대여성해방사상』, 이대출판부, 1989
- Michell Juliet, "Women : The Longest Revolution", New Left Review 40, 1966.
- 치즈코 우에노,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Abstract

The dead angle of an understanding, women's problems
- The report on poetry of Kim, Nam-Joo

Jung, Soon-Jin

This thesis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women's problems in poetry of Kim, Nam-Joo.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

He reveals national contradiction and the class oppression through the representation of violated women's image. He expresses the sexual oppression, but he doesn't understanding women's problems. This is because for he understands the sexual oppression in patriarchy ideology. So he blames violated women. He is sexist, besides he reproduces sexism through poetry.

Of cause he creates the positive women's image. But that women can not but live beyond nation and class and gender. Women only exist the role of a devoted mother and sister in family. He is blind that mother and sisters were repressed in the patriarchy family. Only child can find women equal, because he doesn't know the sexism.

This is because Kim, Nam-Joo only know the sexual violence by the ruling class and foreign power as women's problems. He ignores the inequality of labor, no pay house work and reproduction, etc.

He has been interested in national contradiction and class oppression. So he cares nothing women's problems.

key word : sexual oppression, sexism, national contradiction, class oppression, patriarchy family